

# kiri Weekly

2016.7.4. 제391호

## 기고

연금저축상품 장기 투자성과 분석: 비교공시 자료를 중심으로

## 이슈 분석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의 시사점

## 글로벌 이슈

브렉시트 이후 영국 보험산업에 대한 전망  
대재해채권 발행을 통한 전염병리스크 헤지

##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기고와 이슈 분석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 연금저축상품 장기 투자성과 분석 :비교공시 자료를 중심으로

이경희 교수(상명대학교 보험경영학과)

## 요약

- 연금저축상품은 장기계약 특성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 계약이전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6월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적립금을 이체시키는 것도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저축상품의 투자성과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짐.
- 연금저축상품 간 투자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권별로 상이한 사업비 부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신탁(은행) 및 펀드(증권·자산운용)는 실적배당형으로 적립금에 비례하여 사업비를 부과하므로 초기 사업비는 낮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증하는 반면, 보험(생보·손보)은 금리연동형(최저보증이율 존재)으로 납입보험료에 비례하여 사업비를 부과하므로 초기사업비가 높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구조임.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공시에 공표된 자료를 활용하여 장기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분기 조회 시점 기준으로 출시 후 8년 이상 경과한 상품 전체의 단순평균 수익률은 3.5%, 10년 경과 후 적립률(적립금÷납입원금)은 115.1%로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 판매된 전체 상품에 대한 투자성과를 신탁·펀드·생보·손보상품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평균값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음.
  - 다만, 동일 업권 내 상품 간 수익률 격차는 펀드상품이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나타나, 펀드상품 선택 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8년 이상 경과 펀드 연평균 수익률 -3.1~12.2% 분포, 표준편차 3.3%).
- 연금저축상품의 장기 투자성과가 금융권역 및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고 동일 회사 내에서도 상품별로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신규 가입 및 계약이전 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함.
  - 특히, 펀드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한 상품도 존재하므로, 자신의 위험감내도를 추가로 고려하고 투자대상 및 투자시점을 잘 선택해야 함.
  - 연금저축상품을 10년 이상 장기 유지할 경우, 금융권역 특성보다 금융회사별 상품관리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1. 검토배경



- 연금저축상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최저 15년 이상 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
  - 200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판매된 연금저축상품은 적립 후 10년 경과와 5년 이상 분할 수령을 요구하며, 2013년 3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적립 후 5년 경과와 10년 이상 분할 수령을 요구함.
  - 납입금액(연 4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5,500만 원 이하: 15%, 5,500만 원 초과: 12%)하며, 총 연금액이 일정금액(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3~5%)와 종합과세(6~38%) 중 선택할 수 있음.
  
- 연금저축상품의 장기계약 특성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계약이전)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6월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서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해짐.
  - 2014년 상반기 금융회사 간 연금저축 계좌이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7.7% 증가한 8,650건에 달하였음(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 4. 21).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 대상 규모는 2015년 말 기준 총 계좌 수의 6.8%인 53만 건, 14조 원에 달한다고 함(머니투데이 2016. 5. 31).
  
- 계좌이체는 수익률 저조나 수수료 불만 등의 이유로 기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저금리 현상이 고착화될 경우 이러한 니즈는 더욱 높아질 것임.
  
- 이에 보고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상품 수익률 비교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장기 투자성과를 금융 권역 상품 유형별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장기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 1분기 기준 판매개시 후 8년 이상 경과한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과 10년 전 가입을 가정하여 산출한 적립률을 연금신탁(은행)/연금펀드(증권 · 자산운용)/연금보험(생보)/연금보험(손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2.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의 특징



- 연금저축상품은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어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자산운용사),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손해보험)으로 구분되어 불림.
- 금융권역별 투자성과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권역별로 취급하는 연금저축상품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함.
- <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은 납입방식, 상품유형, 적용금리, 사업비 부과방식, 원금보장 및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수령하는 연금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각기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음.

<표 1> 연금저축상품 비교

구분	연금저축신탁 (은행)	연금저축펀드 (증권·자산운용사)	연금저축보험 (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 (손해보험)
납입방식 <sup>1)</sup>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상품유형	채권형 안정형(주식 10% 미만)	채권형(채권 60% 이상) 혼합형(채권/주식) 주식형(주식 60% 이상) 등	금리연동형(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이 매월 변동)	금리연동형(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이 매월 변동)
적용금리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있음)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있음)
사업비 부과방식	후취 구조 적립금 비례	후취 구조 적립금 비례	선취 구조 납입 보험료 비례	선취 구조 납입 보험료 비례
원금보장	보장	미보장	보장	보장
연금형태	확정기간	확정기간	종신, 확정기간	확정기간(최대 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주: 1) 자유납이란 납입하는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납입방식이고, 정기납이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임.

자료: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길라잡이에서 저자 수정 작성.

- 연금저축신탁 상품의 사업비는 매 기준시점의 적립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적립금이 적은 가입 초기에는 수수료 부담이 낮아 투자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그러나 계약기간이 길어져 적립금 규모가 증가하면 수수료 부담도 높아짐.
  - 가입자가 자유롭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라는 장점이 있음.
  
- 연금저축펀드 역시 연금저축신탁과 마찬가지로 적립금에 비례하는 후취방식으로 사업비를 부과하므로 가입 초기에는 수수료 부담이 적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수수료 부담이 높아짐.
  -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원금보장이 안되고 예금자보호 적용대상도 아니지만, 채권형·혼합형·주식형 등 다양한 위험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음.
  
- 연금저축보험은 신탁·펀드와 달리 선취방식으로 사업비를 부과함에 따라,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부담이 높지만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갖고 있음.
  - 선취방식으로 인해 초기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만, 장기 유지할 경우 사업비 부담이 낮아져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 적용 대상이며, 적용금리는 시장금리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하는 공시이율 방식이고, 최저이율<sup>1)</sup>을 보장함.

### 3. 장기 투자성과 분석



#### 가. 데이터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공시 사이트<sup>2)</sup>에서는 2001년 1월 이후 판매된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1) 2001~2007년 판매된 개인연금보험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2.0~4.0% 수준으로 파악됨.

2) [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계좌이체 및 관련 수수료 각각에 대해 조회하면, 금융권역별 협회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 공시정보로 연결됨.
-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구(舊) 개인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자료는 공시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1>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공시



<공시제도 조회하기>

[수익률 비교공시]	[수수료 비교공시]	[유지율 비교공시]	[계좌이체제도 및 관련수수료]
은행(연금신탁) >>	은행(연금신탁) >>	은행(연금신탁) >>	은행(연금신탁) >>
자산운용(연금펀드) >>	자산운용(연금펀드) >>	자산운용(연금펀드) >>	자산운용(연금펀드) >>
생명보험(연금보험) >>	생명보험(연금보험) >>	생명보험(연금보험) >>	생명보험(연금보험) >>
손해보험(연금보험) >>	손해보험(연금보험) >>	손해보험(연금보험) >>	손해보험(연금보험) >>

※ 위의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클릭하면, 금융권역별 협회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 공시정보로 연결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공시 홈페이지.

■ 2016년 1분기 기준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판매 중지 포함)은 총 1,943개에 달하며, 2013년 이후 신규상품 출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연금신탁은 총 36개의 상품에 대한 수익률이 공시되고 있으며, 이들 상품의 대부분이 2001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상품이고 2008년 이후에는 신규 출시된 상품이 없음.
- 연금펀드는 전체 1,973개의 50.3%에 달하는 977개 정보가 공시되고 있는데, 977개 중 88.5%가 2013년 이후 판매된 상품임.
- 연금보험(생보)과 연금보험(손보)은 각각 433개, 497개 상품의 수익률이 공시되고 있는데, 매년 신규 상품이 출시되었음.

〈표 2〉 연금저축상품 판매개시 건수 추이(2016년 1분기 기준)

(단위: 건, %)

판매개시 연도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생보)	연금보험(손보)	전체
2001	27	14	26	25	92
2002	0	0	7	8	15
2003	1	1	17	16	35
2004	4	0	7	3	14
2005	2	5	20	13	40
2006	1	1	26	17	45
2007	1	14	7	23	45
2008	0	9	14	19	42
2009	0	15	46	59	120
2010	0	13	19	28	60
2011	0	22	6	29	57
2012	0	18	47	30	95
2013	0	125	45	83	253
2014	0	288	18	42	348
2015	0	395	85	72	552
2016	0	57	43	30	130
합계(2001~2015)	36	977	433	497	1,943
비중 <sup>1)</sup>	1.9	50.3	22.3	25.6	100.0

주: 1) 전체 합계(2001~2015)에서 각 금융권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공시 데이터 다운로드([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 ■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관련 정보로 공시되는 사항은 직전 3년의 연간 수익률, 판매 이후 연평균 수익률, 과거 적립률(1/3/5/7/10년) 등임.<sup>3)</sup>

- 연간 수익률은 각 연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이고, 연평균 수익률은 판매시점부터 조회시점까지 납입한 원금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익률임.
  - 예를 들어, 판매개시 후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4%라고 한다면, 10년 동안 납입된 원금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4%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적립률은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1/3/5/7/10년 전에 가입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납입원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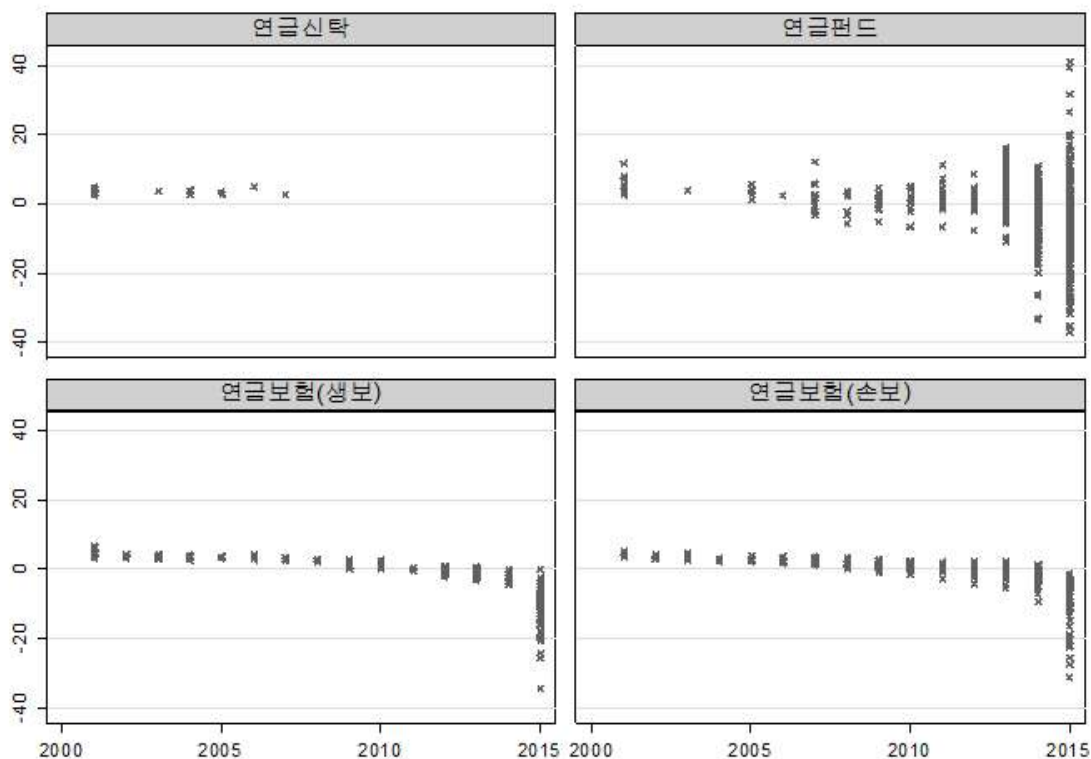
3)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공시 길라잡이, pp. 6~7. 연금저축보험상품의 경우 장래(판매시점부터 각 15년, 20년, 30년) 시점의 예상 적립률도 공시하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은 수치이므로 제외함.

- 적립금은 납입원금에 이자 등 수익을 더하고 수수료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적립금이 많을수록 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재원이 많아지게 됨.
- 적립률 계산방식을 예로 들면, 10년간 납입원금이 3,600만 원이고 적립금이 4,320만 원인 경우 10년차 적립률은 120%(4,320만 원÷3,600만 원)가 되는 바, 이는 적립금이 납입원금 대비 1.2배임을 의미하는 것임.

### 나. 판매개시 연도별 판매 이후 연평균 수익률

- 2016년 1분기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 개시된 1,943개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을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 판매된 상품일수록 권역별 특성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

<그림 2> 판매개시 연도별 판매 이후 연평균 수익률



- 연금신탁의 경우 2008년 이후 신규 출시된 상품이 없으므로, 2001~2007년 판매개시된 상품의 판매 이후 연평균 수익률을 나타낸 것임.
- 연금펀드의 경우 2013년 이후 대부분의 상품이 출시되어 최근 연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상품 간 수익률 분포의 폭이 매우 넓음.
- 연금보험의 경우 모든 연도에 신규 상품이 판매되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며, 최근 연도일수록 마이너스 수익률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가입 초기 보험료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업비 부과방식에 기인한 것임.

■ <그림 2>를 통해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수익률 비교 시 어느 시기에 판매된 상품(예: 2001년 vs. 2015년)을 선정하느냐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초기 사업비 부과가 집중되어 적립을 위해 투입되는 원금이 감소하므로 대체적으로 판매개시 후 3년 경과 시점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타나게 됨.
-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을 비교할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다. 장기 연평균 수익률 및 적립률

■ 15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1,943개 상품 중 판매개시 후 8년 이상 경과한 상품만을 대상으로 수익률과 적립률을 분석함.

- 당초 10년 이상 경과한 상품만을 대상으로 투자성과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2001~2005년 판매개시된 펀드가 21개에 불과하며, 이 중 설정액 100억 원 이상 펀드는 14개에 불과해 대상 상품을 8년 이상(2001~2007년 판매개시)으로 확대하였음.

■ 금융권역 간 동일 기준을 설정하여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펀드상품은 설정액을 공시하는 데 비해 신탁·보험상품은 유지건수를 공시하고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하여 성과를 비교하는 데 한계로 작용함.<sup>4)</sup>

- 펀드는 설정액(억 원) 기준, 신탁과 보험은 유지건수(건) 기준으로 2001~2007년 출시된 상품의 기술통계를 정리하면 상품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4) 연금저축 통합공시 항목 중 “유지율 비교공시”에 연금저축 펀드의 유지건수 자료가 있으나, 수익률과 매칭이 용이하지 않아 설정액을 사용하였음.

- 신탁 36개 상품의 유지건수는 122~78,948건임.
- 생보 110개 상품의 유지건수는 1~59,989건이며, 손보 105개 상품의 유지건수는 41~18,372건임.
- 유지건수가 아닌 설정액을 공시하는 펀드의 경우 35개 상품별 설정액은 0.4~8,008억 원임.

〈표 3〉 연금저축상품 유지건수 · 설정액(2001~2007년 판매개시 상품, 2016년 1분기 기준)

(단위: 건, 억 원)

구분	상품개수	유지건수(설정액)				
		평균	최저	최대	표준편차	중앙값
신탁	36	12,040	122	78,948	16,029	5,722
펀드	35	678	0.4	8,008	1,423	164
생보	110	8,658	1	59,989	14,131	1,864
손보	105	3,268	41	18,372	3,673	1,874

주: 신탁 및 보험은 유지건수(건)이며 펀드는 설정액(억 원) 기준임.

■ 판매개시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수익률 산출방식 및 대상상품 범위에 따라 4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산출하였음.

- 상품별 유지건수 및 설정액 차이를 감안하여, 수익률 산출방식을 단순평균과 가중평균(유지건수 및 설정액 기준)으로 구분함.
- 대상상품 범위는 공시된 상품 전체와 대표성을 갖는 상품으로 구분하였음.
  - 대표성을 갖는 상품은 신탁 및 보험의 경우 유지 1,000건 이상이며, 펀드는 설정액 100억 원 이상으로 선정하였음.<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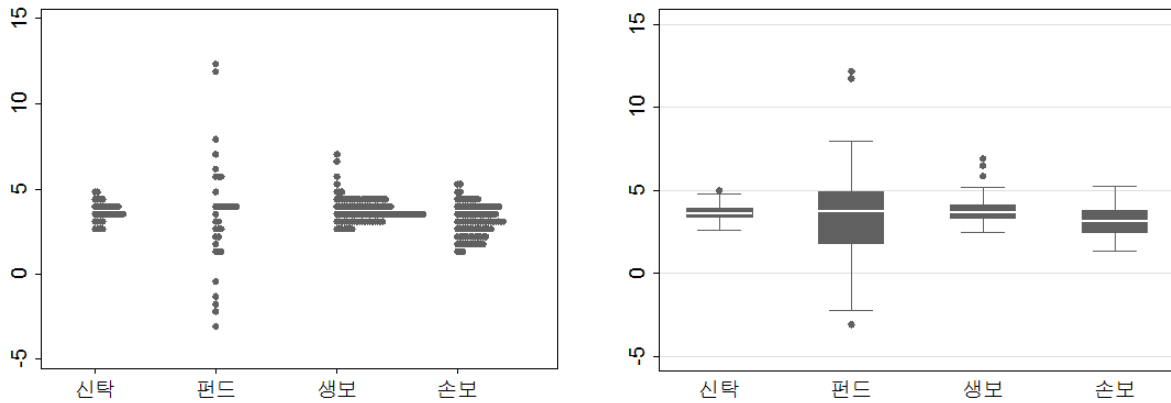
■ 금융회사별 판매개시 이후 연평균 수익률 분포는 〈그림 3〉과 같이 업권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임.<sup>6)</sup>

- 신탁 및 보험의 수익률은 평균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펀드 수익률은 상품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여 분포가 상당히 넓음.

5) 금융권역별로 대표상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연구자의 자의성이 반영될 수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표상품 선정 기준이 변경되면 금융권역별 투자성과도 달라질 수 있어 전체 상품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6) 전체 상품에 대한 수익률 분포는 〈부록 그림 1〉 참조.

〈그림 3〉 판매 이후 연평균 수익률 분포(2001~2007년 판매개시 상품, 2016년 1분기 기준)



주: 해당 기간 출시된 전체 상품에 대한 상품별 연평균 수익률 분포임.

■ 2001~2007년 판매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을 4가지 기준으로 산출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음.

- 동 기간 판매된 286개 상품의 단순평균 수익률은 3.5%이며, 최저 -3.1%, 최대 12.2%, 표준편차<sup>7)</sup> 1.4%로 나타남.
  - 권역별 수익률 평균(3.1~3.8%)은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표준편차는 펀드 3.3%, 신탁 및 보험 0.6~0.9%로 펀드 상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시된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유지건수(설정액) 기준 가중평균 수익률 평균값은 3.5%이며, 최저 -3.1%, 최대 12.2%임.

■ 한편, 10년 전(최초 가입기간: 2001. 1~2006. 3)에 가입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납입원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음.

- 〈그림 4〉 오른쪽 박스 그림을 통해 신탁-펀드-생보-손보 간 변동성 척도인 사분위수 간 범위를 비교할 수 있으며, 중앙값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 펀드상품이 사분위수 간 범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상품 간 수익률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7) 본고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금융회사별 시계열 자료가 아니라 2016년 1분기 기준 해당 권역 내 상품 수익률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참고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2012. 10. 16)에 의하면, 2012년 6월 기준 과거 10년간 금융회사별 월간 수익률을 기초로 계산한 표준편차는 신탁 채권형 0.28%/신탁 안정형 0.47%, 생보 0.04%/손보 0.03%, 펀드 채권형 0.38%/펀드 혼합형 3.34%/펀드 주식형 5.87%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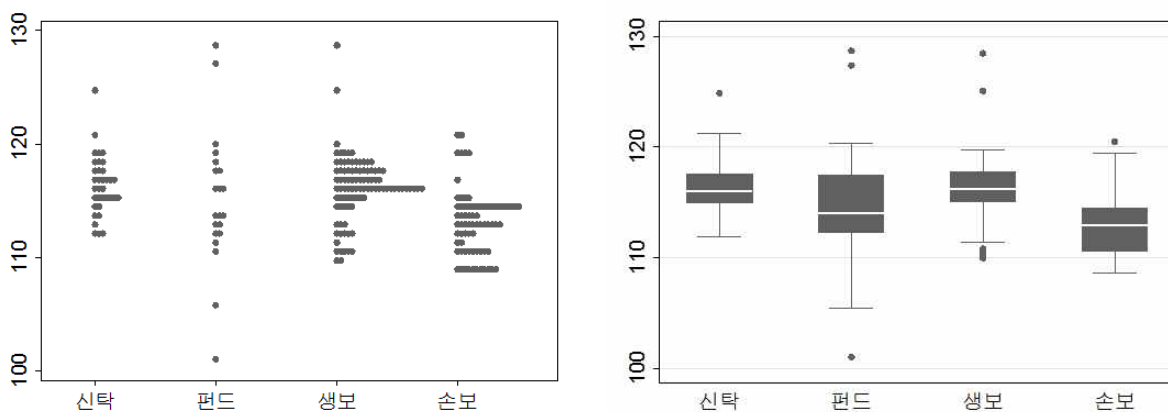
〈표 4〉 판매 이후 연평균 수익률(2001~2007년 판매개시 상품, 2016년 1분기 기준)

(단위: 건, %)

구분	상품개수	평균	최저	최대	표준편차	중앙값	
단순평균 · 전체상품	신탁	36	3.6	2.6	5.0	0.6	3.6
	펀드	35	3.5	-3.1	12.2	3.3	3.7
	생보	110	3.8	2.5	6.9	0.7	3.7
	손보	105	3.1	1.3	5.3	0.9	3.2
	전체	286	3.5	-3.1	12.2	1.4	3.5
가중평균 · 전체상품	신탁	36	3.6	2.6	5.0	0.5	3.6
	펀드	35	5.4	-3.1	12.2	3.3	6.0
	생보	110	3.6	2.5	6.9	0.6	3.5
	손보	105	3.0	1.3	5.3	1.0	2.7
	전체	286	3.5	-3.1	12.2	0.8	3.5
단순평균 · 대표상품	신탁	30	3.7	2.6	5.0	0.6	3.7
	펀드	21	4.2	-1.4	12.2	3.4	3.8
	생보	66	3.8	2.5	6.9	0.8	3.7
	손보	71	3.1	1.3	5.3	1.0	3.2
	전체	188	3.6	-1.4	12.2	1.4	3.6
가중평균 · 대표상품	신탁	30	3.6	2.6	5.0	0.5	3.6
	펀드	21	5.5	-1.4	12.2	3.3	7.3
	생보	66	3.6	2.5	6.9	0.6	3.5
	손보	71	3.0	1.3	5.3	1.0	2.7
	전체	188	3.5	-1.4	12.2	0.8	3.5

주: 1) 대표상품으로 신탁 및 보험은 유지건수 1,000건 이상, 펀드는 설정액 100억 원 이상으로 선정한 결과임.  
2) 표준편차는 2016년 1분기 말 시점의 권역별 상품 수익률을 기초로 계산한 것임.

〈그림 4〉 과거 10년 적립률 분포(2016년 1분기 기준)



주: 2001년 1월부터 2006년 3월 동안 신규 출시된 상품의 10년 경과 후 적립률임.

■ 과거 10년 적립률<sup>8)</sup> 역시 4가지 기준으로 산출하여 비교하면 <표 5>와 같음.<sup>9)</sup>

- 동 기간 판매된 224개 상품의 단순평균 적립률 평균값은 115.1%이며, 최저 101.0%, 최대 128.7%, 표준편차는 3.6%로 나타남.
  - 적립률 평균(113.1~116.3%)은 금융권역별로 상당히 유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표준편차 (2.6~6.1%)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가중평균한 적립률 평균값은 116.3%, 최저 101.0%, 최대 128.7%, 표준편차 2.7%임.

<표 5> 10년 경과 후 적립률(2001. 1~2006. 3 판매개시 상품, 2016년 1분기 기준)

(단위: 건, %)

구분		상품개수	평균	최저	최대	표준편차	중앙값
단순평균 · 전체상품	신탁	35	116.3	111.9	124.8	2.6	116.0
	펀드	21	115.2	101.0	128.7	6.1	114.1
	생보	95	116.1	110.0	128.4	2.8	116.2
	손보	73	113.1	108.6	120.5	2.9	113.0
	전체	224	115.1	101.0	128.7	3.6	115.2
가중평균 · 전체상품	신탁	35	116.8	111.9	124.8	2.0	116.8
	펀드	21	109.3	101.0	128.7	8.7	105.5
	생보	95	116.8	110.0	128.4	1.6	116.6
	손보	73	114.0	108.6	120.5	3.9	113.4
	전체	224	116.3	101.0	128.7	2.7	116.6
단순평균 · 대표상품	신탁	29	116.6	111.9	124.8	2.6	116.8
	펀드	14	115.3	101.0	128.7	7.3	115.1
	생보	58	117.0	110.1	128.4	2.4	116.6
	손보	47	113.1	108.6	120.5	3.4	113.4
	전체	148	115.5	101.0	128.7	3.9	115.8
가중평균 · 대표상품	신탁	29	116.8	111.9	124.8	2.0	116.8
	펀드	14	109.3	101.0	128.7	8.9	105.5
	생보	58	116.9	110.1	128.4	1.6	116.6
	손보	47	114.0	108.6	120.5	4.0	113.4
	전체	148	116.4	101.0	128.7	2.7	116.6

주: 1) 대표상품으로 신탁 및 보험은 유지건수 1,000건 이상, 펀드는 설정액 100억 원 이상으로 선정한 결과임.  
 2) 표준편차는 2016년 1분기 말 시점의 권역별 상품 수익률을 기초로 계산한 것임.

8) 7년 경과 후 적립률은 <부록 표 1>에 첨부하였음.

9) 해당 기간 출시된 전체 상품에 대한 10년 경과 후 적립률 분포는 <부록 그림 1> 오른쪽 그래프에 첨부하였음.

■ 전체 금융권역을 포함하여 10년 적립률 상위 10위에 기록된 상품을 정리하면 <표 6>과 같음.

- 투자성과 상위 10위권에 펀드, 신탁, 보험상품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10년 이상 장기 유지 시 금융권역 특성보다 회사의 상품관리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함.

<표 6> 10년 경과 후 적립률 상위 10위 상품(2016년 1분기 기준)

(단위: 건, 억 원, %)

순위	적립률	금융회사	상품유형	유지건수/ 설정액 <sup>1)</sup>	10년 유지율	판매개시 연도
1	128.7	자산운용	채권형	892	55.6	2005
2	128.4	생명보험	금리연동형	1,944	60.1	2001
3	127.3	자산운용	혼합주식형	876	56.8	2001
4	125.1	생명보험	금리연동형	2,304	69.6	2001
5	124.8	은행	안정형	7,951	68.8	2006
6	121.2	은행	채권형	4,006	65.9	2001
7	120.5	손해보험	금리연동형	5,928	59.6	2001
8	120.5	손해보험	금리연동형	1,269	-	2001
9	120.3	자산운용	혼합채권형	144	75.8	2005
10	119.8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sup>2)</sup>	65	-	2001

주: 1) 신탁 및 보험은 유지건수, 펀드는 설정액임.

2) 2000년대 초반까지 일부 보험사는 금리확정형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였음.

## 4. 시사점



■ 신규 가입 및 계약이전 시 연금저축 수익률에 대한 비교공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상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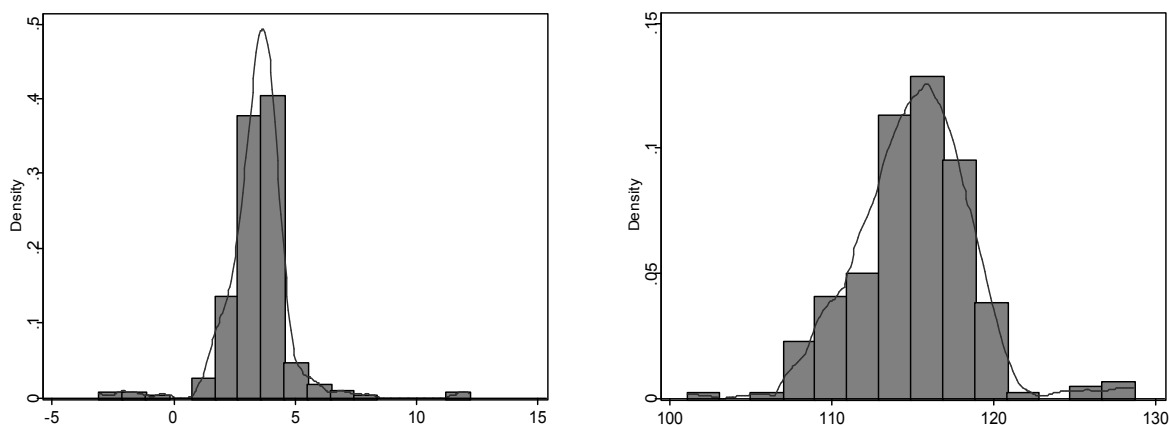
- 이는 사업비 부과방식을 선취(보험료 비례)로 하느냐 후취(적립금 비례)로 하느냐에 따라 판매개시 후 경과시점에 따라 수익률 패턴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공시되는 수익률은 해당 상품을 최초 판매한 시점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고 표준가입조건에 따라 산출된 수치이므로 개별 가입자의 실제 수익률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함.

- 개인별 실제 수익률은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수익률 외에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경과기간, 사업비 부과방식, 가입조건(예: 최저보증이율 여부 및 수준 등), 향후 연금수령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
- 신규 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가 공시 정보를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품별 수익률 외에 유지율, 유지건수 및 적립금 규모 등을 한 번에 조회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유지건수가 많고, 유지율이 높으며, 적립금 규모도 클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런 유형의 상품을 편리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장기 투자성과 분석 결과는 금융회사가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함.
- 2016년 1분기 기준 8년 이상 경과된 연금저축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은 3.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입한 지 10년 경과 후 적립률도 납입원금 대비 1.15~1.16배 수준에 머물러, 판매당시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됨.
  - 연금저축상품은 최소 15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장기저축상품이므로 이에 적합한 상품구조 및 자산운용방식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함.
  - 초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투자수익 제고를 위한 연금상품 운용전략이 필요함.
- 연금저축상품의 장기 투자성과가 금융권역 및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일 회사 내에서도 상품별로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신규 가입 및 계약이전 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함.
- 펀드는 위험자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한 상품도 다수 존재하므로 자신의 위험감내도를 추가로 고려하고, 투자대상 및 투자시점을 잘 선택해야 함.
  - 연금저축상품을 10년 이상 장기 유지할 경우 금융권역 특성보다 회사의 상품관리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의사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금저축상품이 초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소비자는 신규 가입 및 계약이전 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해당 상품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자신의 위험감내도를 고려하여 상품관리 능력이 뛰어난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회사는 투자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15년 이상 유지되는 연금저축상품의 장기 특성을 감안하여, 상품구조를 변경하고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해야 함.
- 아울러, 세제혜택에 초점을 둔 마케팅에만 치중하지 말고, 기존 상품의 유지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kiri**

〈부록 그림 1〉 전체 상품 투자성과 분포(2016년 1분기 기준)



주: 왼쪽 그래프는 연평균 수익률(2001. 1~2008. 3 출시 상품) 분포이며, 오른쪽 그래프는 10년 적립률(2001. 1~2006. 3 출시 상품) 분포임.

〈부록 표 1〉 7년 경과 후 적립률(2001. 1~2009. 3 판매개시 상품, 2016년 1분기 기준)

(단위: 건, %)

구분		상품개수	평균	최저	최대	표준편차	중앙값
단순평균 · 전체상품	신탁	36	109.8	107.5	114.0	1.6	109.8
	펀드	35	105.6	88.3	140.4	10.0	105.9
	생보	110	106.6	100.8	115.8	2.6	107.1
	손보	105	104.1	100.1	110.5	2.6	103.6
	전체	286	106.0	88.3	140.4	4.5	106.0
가중평균 · 전체상품	신탁	36	109.8	107.5	114.0	1.3	109.9
	펀드	35	102.5	88.3	140.4	11.4	99.1
	생보	110	107.3	100.8	115.8	1.3	107.3
	손보	105	104.8	100.1	110.5	2.9	104.4
	전체	286	106.0	88.3	140.4	4.5	106.0
단순평균 · 대표상품	신탁	30	109.8	107.5	114.0	1.3	109.9
	펀드	21	102.4	92.5	140.4	11.6	99.1
	생보	66	107.3	101.0	115.8	1.2	107.3
	손보	71	104.8	100.3	110.5	2.9	104.4
	전체	188	107.4	92.5	140.4	2.8	107.6
가중평균 · 대표상품	신탁	30	110.0	107.5	114.0	1.6	110.0
	펀드	21	106.5	92.5	140.4	10.6	105.8
	생보	66	107.2	101.0	115.8	1.9	107.3
	손보	71	104.3	100.3	110.5	2.6	104.1
	전체	188	106.5	92.5	140.4	4.5	106.6

주: 1) 대표상품으로 신탁 및 보험은 유지건수 1,000건 이상, 펀드는 설정액 100억 원 이상으로 선정된 결과임.  
2) 표준편차는 2016년 1분기 말 시점의 권역별 상품 수익률을 기초로 계산한 것임.